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선 박순철

화순군, 군민 건강 챙긴다

미세먼지 줄이기 적극 대응

지원 조례 제정·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

화순군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지원조례 제정 등 미세먼지 줄이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5월 중에 입법예고기로 했다.

군은 대기오염측정망을 10월까지 화순군 CCTV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모니터링 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화순군 홈페이지 및 옥외광고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미세먼지 수치 및 행동요령을 홍보해 군민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취약계층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32명에게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3대에서 10대로,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은 올해 13대에서 내년엔 15대로 각각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군은 산업부문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

별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오염원 배출 고질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미세먼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노면 청소차량을 수시 운행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은 취약계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지원조례 제정 후 어린이 및 노인 등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등 보호 장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군민이 미세먼지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웹툰 교실' 인기 폭발

'정원에 놀러와, 웹툰을 만나다' 주제 진행



2018대한민국정원산업디자인전 기간 동안 국가정원 습지센터 1층에서 운영 중인 '순천만 봄꽃웹툰교실'이 국가정원을 찾는 어린이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인기폭발중이다.

웹툰교실은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축제와 정원산업디자인전을 연계한

행사로 '정원에 놀러와, 웹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만화에 대한 무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웹툰교실은 캐리커처를 그리면 배지로 만들어주는 '나만의 배지 만들기', 불에 구우면 플라스틱이 되는 마법종이 슈링클스로 캐릭터 소

품 만들기, 또한, VR로 보고싶은 만화 감상, 4컷 만화를 그리면 사은품도 받고 책으로도 만들어지는 '나도 만화가' 등 방문객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보다 어른들의 인기가 더 높다.

봄꽃웹툰교실은 '2018대한민국정원산업디자인전' 기간동안 열려 방문객들에게 웹툰과 정원산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성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봄꽃웹툰교실을 계기로 지역 웹툰산업의 가능성을 보였다"면서 "오는 하반기에 도심유류빌딩을 리모델링한 글로벌웹툰센터가 구축되면, 지역에 있는 신진작가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으면 호남지역에 웹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6월과 12월이면 은행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뜻밖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집 전기 코드를 뽑고, 수도물을 쬐 아꼈을 땀인데 에너지 절약했다고 돈까지 주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했기 때문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가,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 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2017년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11551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1억3천2백여 만원을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산화탄소 2217톤으로 30년생 소나

무 33만 그루가 1년 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윤태상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와 수도 요금도 절감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탄소포인트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은 www.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환경보호과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749-5786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박차

광양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봄을 맞아 정수처리의 핵심시설인 침전지와 여과지 내를 청소하고, 조정수 전정 등을 통한 주변 환경을 정비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정수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하절기 상수원의 녹조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용강정수장에 분말활성탄 투입시설과 정확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노후된 수질자동측정기, 배수지 노후 전동밸브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 수질검사에 적합관정 결과를 홈페이지 '상수도 생산 및 수질정보란'에 공개해 시민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갑을문화 개선'에 팔 걷어

범시민 운동 다짐대회 개최...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광양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그릇된 갑을문화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갑을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갑을문화 바꾸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알리기 위한 시작으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12개 기관·기업·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12개 기관·기업·단

체는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광양상공회의소, 농협광양지부, 포스코 사내하청 상생협의회, 광양참여연대, 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 등이다.

참여한 기관·기업·단체에서는 앞으로 각 직장과 조직 내에서 계급 및 상하·상벌 간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따라서 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용어를 사용하며,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국립나주 숲 체원' 첫 삼...산림복지 新 패러다임 연다

2020년 하반기 준공 목표



호남 8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나주 금성산을 활용, 산림복지분야 신(新) 패러다임을 선도할 '국립나주 숲 체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나주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1일 오후 2시, 경현동 산 1-6번지 금성산 일원에서 조재운 나주시장, 김재현 산림청장,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내·외빈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국립나주숲체원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나주 숲 체원'은 도심 속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체험 및 건강·휴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산림청 녹색자금(복권기금) 총 200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나주 숲 체원 시설을 비롯해 금성산 자연환경을 심본 활용한 시민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방문객 편의시설, 식당 등을 갖춘 방문자센터와 강연 및 교육 장소인 '강당봉',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휴양관', 전통차, 공예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숲 다원' 등이 있다.

녹화를 통한 자원화 사업이 추가됐던 기존 산림의 기능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양·건강·복지·교육·체험 등의 역할이 추가되면서 산림 분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귀농·귀촌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나주시는 금번 숲 체원을 통해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 해소는 물론,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민 간 교류 활성화 등 체계적이고도 특화된 산림복지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또 산림복지 전문가 인재 육성을 통한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